

2017 하계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 캄보디아



Ewha Friends in Cambodia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고*원 (국문)

지난 10박 11일 동안 꿈을 꾸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우리 봉사 단원들, 선생님들, 눈에 별을 박은 듯한 캄보디아 아이들까지도 모두 앞으로 절대 잊을 수 없을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출국 전 2주가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때 모두가 고생했기에 캄보디아에서의 11일이 더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에도 이제는 감사합니다.

더워도 덥지 않았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던 것의 원동력은 우리 사랑 넘치는 이화봉사단과 아무리 안아주고 예쁘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이 글을 빌려 우리 봉사단에게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인상 찌푸리지 않고 늘 밝은 얼굴로 서로 마주하던 우리 봉사단 덕분에 크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봉사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맙고 소중하고, 마지막 날 롤링페이퍼를 통해서나마 전했던 내용이지만, 정말 한국에서도 오래 보고 싶은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고 기억들이고 그래요. 더불어서, 이 말을 아이들에게 직접 전하지 못해 아쉽지만 부족한 저를 빛나는 눈으로 바라봐 주고 또 잘 따라와 준 캄보디아 아이들에게도 너무 고맙습니다. 얼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마음을 안고 출국했는데, 귀국하는 길에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 보다 아이들을 통해 배워온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만 생각하고, 앞만 보며 달려온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맑고 천사 같던 아이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아이들과 함께한 10박 11일이 저에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생님이 되는 경험이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매일이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과장을 하나도 보태지 않고도 이렇게 진심으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체력에 있어서라면 늘 자신 만만했지만 처음 나가보는 해외봉사에 괜히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음식이 맞지 않을까 봐도 많이 걱정했고, 날씨가 더울까 봐도 많이 걱정했지만 늘 옆에서 저희 잘 케어 해주신 진윤경 선생님 덕분에 별 문제 없이 10박 11일 잘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 드려요. 늘 맛있는 식당 찾아서 고생했다며 맛있는 밥 주문해 주시던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도 종종 생각나요. 배 아프다고 하면 차도 챙겨주시고 또 엄마처럼 신경 써 주시던 것도 모두 감사합니다. 또 생전 처음 그려보는 벽화에 실수도 많이 했는데 저희 벽화 예쁘게 그려 주시던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끔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던 것도 너무 생각나고 그래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꼭 또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단 속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함께했던 모든 기억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가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더운 날씨도 잊게 될 정도로 캄보디아 아이들이 너무 예뻐고 사랑스러웠고 그 덕분에 매번 행복하고 가슴 벅찼습니다. 좋은 추억 선물해주신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봉사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힘든 중에 한줄기 빛처럼 저와 매 순간 함께했던 이화봉사단도 제가 정말 좋아해요! 기회가 되면 또 캄보디아에 가고 싶을 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권*경 (사회학)

2016년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 교육봉사에서 만났던 아이들에게서 큰 영감을 얻어 떠났던 2017년 하계 이화봉사단 해외 교육봉사,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발전한 곳이기도 했고, 낙후된 곳이기도 했다. 캄보디아의 빈부격차를 비교적 쉽게 느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보이는 높고 화려한 건물과 한 건물건너 마다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건물들은 캄보디아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위험한 차도에서 차와 차 사이를 지나 다니며 구걸하시는 할아버지들과 세차를 막 끝낸 차에서 흐르는 물로 만들어진 물웅덩이에서 얼굴을 씻는 아이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비가 오고 나면 배수가 잘 되지 않아 가는 곳마다 물이 고여 있기도 했다.

이렇게 낙후된 곳에서도 아이들은 정말 밝았다. 비가 온 날 발 디딜 틈도 없이 학교 운동장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지만, 아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 봉사단이 있는 도서관으로 달려와 인사해주었고, 비 오는 소리에 우리 교사들의 목소리가 묻혀도 아이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집중하려 했다. 나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시간에 포첸통 초등학교의 노천 교실에서 위생 수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교실에 벽이 없다 보니 비 내리는 소리 때문에 교사들의 목소리가 1m 밖으로 전달되지 못했고, 그래서 나와 통역 선생님은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 성량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아이들의 책걸상과 책을 적시는 중에도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열심히 따라해 주고, 대답해주었다. 이 장면은 몇 년이 지나도 나와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봉사단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내 교육봉사를 갔을 때 만났던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기 전, 내가 맡은 수업 내용을 달달 암기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켰고 캄보디아에서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에게 짧은 크메르어로 먼저 말을 걸고, 아낌없이 칭찬하고, 웃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나서서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만나게 된 아이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것이나 어린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놀아주는 것, 아이들을 먼저 안아주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외동으로 자라온 내가 낯을 많이 가리기에 처음 본 사람과의 스킨십이 익숙하지 않아서 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인 것 같기도 했다. 적절한 스킨십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하는 내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 낯가림을 고쳐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적당한 스킨십을 통한 진심 전달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권*령 (역사교육)

대학 3년간 방학 때 간간히 초등학교 교육 봉사를 해 왔었다. 사소하지만 어린 친구들이 선생님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을 주는 모습들이 교육 봉사의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도 교육 봉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이화봉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캄보디아라는 생소한 국가에서 모국어도 아닌 영어로 교육을 한한다는 것이 조금 두려워서 망설이기도 했지만, 조금 더 넓은 곳에서 흔치 않은 교육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프로그램에 도전하게 되었다.

예상했듯이, 준비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나의 경우는 다른 대외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OT를 시작으로 출국 전까지 나의 생활은 이화봉사단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단체 회의를 비롯하여 일자 별 모임, 수업 시연까지 단원들과 함께 자주 모여서 활동하였다. 특히나 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단원들과는 더욱 자주 모여서 힘든 만큼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내가 맡은 수업은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센터 1일차 수업이었다. 캄보디아에서 본격적으로 교육 봉사를 시작하는 첫 수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첫날 수업 열기 활동이 이후 2,3일차 교육활동이나 분위기 뿐 아니라 다음날 주 교사 단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1일차 팀원들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들이 좋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센터 아이들이 같이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자기소개, 친구 소개, 워크북 꾸미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이들 반응도 좋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아이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친구 소개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등의 활동이 있어서 좋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시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적절하게 관리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1일차 특성상 시연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면서 모두가 집중도 있게 연습했던 것이 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수업의 경우 준비 시간은 촉박했는데, 대본의 양이 많았다. 게다가 수업 전날까지도 모여서 대사를 수정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을 빌려서 수업을 진행한 만큼,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컸기 때문에 단원들 모두가 노력했던 것 같다. 우리 조의 경우, 배정된 통역 봉사자 '뱃'은 수업도 잘 이끌어주고 우리 단원들과 잘 융화되어 대화도 많이 나누었다. 하지만 막상 수업해보니 학생들은 오히려 통역사 '뱃'의 말에 더 집중하여 듣는 듯 했다. 당연히 크메르어로 말해주는 통역사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나에게 집중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비록 영어로 말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내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과장해서 발음하고 손짓 몸짓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다. "any volunteer?" "from small to big one"등을 너무 과장한 탓에 우리 팀 단원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왠지 나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것 같아서 내심 뿌듯하기도 했다.

이렇게 막상 수업을 진행하고 나니 '신기하다' '아쉽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영어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던 나였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업이 될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았고 긴장하면서 시작했다. 근데 막상 해보니 어차피 학생들과 언어로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과 교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

수업시간에는 내가 정말 즐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주말에 있었던 관광일정을 통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우리가 갔던 이온몰과 같은 곳은 정말 부유한 계층들의 소비 공간 이었다. 하지만 캄보디아 왕국 앞에서 만났던 정말 어린 소년은 아직도 1달러를 외치며 나의 다리를 붙잡았다. 도시도 마찬가지 였다. 진윤경 선생님께서 차량 이동하면서 '같은 길 인데도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 정말 신기한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이었다. 한쪽은 정말 호화스러운 모습이었지만 한쪽은 정말 극빈층의 모습이였다. 같은 공간에 빈부격차가 극명하게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들어온 중국의 어마어마한 자본 투입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나라의 동남아 투자 현황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또한 '킬링필드'의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현대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현대사의 절반 이라고도 생각되는 폴포트 시대의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캄보디아라는 뼈아픈 역사에 대해 알아가고 다양한 공산국가의 실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여기를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훈센총리는 독재자라고 생각했는데, 킬링필드 사건이 있고 난 이후 강력하게 정치적 안정을 시켰던 훈센이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국민이 그를 오랜 시간 지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가져갔던 캄보디아 관련 책을 단번에 다 읽고 잠이 들었다. 책 내용의 반이 앙코르와트에 대한 내용이어서 앙코르와트를 못간 것이 조금 아쉽기는 했다. 하지만 이번에 경험한 캄보디아에서의 교육 봉사 경험, 눈에 보이게 나타났던 빈부격차 문화, 어마 무시 했던 중국 자본의 모습 등 나만의 소중한 경험들은 아쉬움을 잊게 할 만큼 크게 느껴졌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 온지 2주 정도 되었다. 휴식을 취하면서 '메콩강 실크로드', '현대 동남아의 이해' 라는 책을 읽으며 점점 개방화 되어가면서 발전을 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에 관심이 생겼다. 곧 8월 6일부터 한-ASEAN외교 회의도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번 강경화 외교장관의 동남아 개발협력 사업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갔다. 더 넓은 곳에서 교육봉사를 경험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참가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번 경험은 나를 사범대생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심사를 갖게 만들어준 아주 소중한 체험 이었다

 김*연 (교육학)

사범대 학생으로서 대학생 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열흘을 보낸 것은 꽤 중요한 경험이다. 흔히 동아시아라는 이름으로 한,중,일을 단일화 할 수 없듯이, 동남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그 지역의 나라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단일화 하여 판단할 수 없다. 아마도 2017년에 내가 캄보디아 이화봉사단을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캄보디아,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살았을 것이다. 대학생으로서 4년 정도를 지내는 동안 해외, 국내 각지를 다니면서 매년 동일한 것을 깨닫는다. 어디든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움직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고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교육과 복지라는 맥락 안에서 캄보디아 사람,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나아가 국제관계까지 한 국가의 모습이 통합적으로 다가왔다. 봉사활동을 하는 그 시간뿐 아니라 길을 걷고 밥을 먹고 차창 밖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분명 내가 본 캄보디아의 모습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하나 이상의 통찰을 경험하듯이 하나의 단면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는 통찰은 꽤 무거웠다. 이는 내가 관광이 아닌 캄보디아의 청소년을 만나며 소통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환경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교육과 봉사라는 맥락 하에 우리는 사람을 관찰했고, 사람에 대해 고민했으며, 그들과의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낮에도 밤에도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처음 이화봉사단을 신청했을 때는 학기 초였기 때문에 물리적, 정신적 여유가 있었을 때였다. 더욱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난 이화봉사단 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해외 이화봉사단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열정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화봉사단이라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매년 일정과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원이 선발된 후 출국하기까지 약 2개월간의 시간은 학교 측과 현지 측, 그리고 20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합심해 나가기에 꽤 촉박한 시간이었다. 더군다나 학기 중 기말고사를 포함한 기간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의 기간이었다. 대학생의 입장에서 단발적으로, 비규칙적으로 학기 중 시간을 내는 일과 방학의 절반을 투자하는 일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많은 단원이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나 또한 그랬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의 모든 활동을 마친 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나와 전혀 다른 문화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은 쉬운 경험은 아니다. 특히 국내에서 사전 준비를 한다면 말이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대학생들이 타 문화권의 청소년을 상상하고 추측하며 우리와의 차이를 줄여가며 우리만의 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기에 1달은 다소 짧아 보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은 매뉴얼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국내와 현지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어떻게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달렸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시간은 20명의 단원이 크고 작은 변수들을 같은 마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친목을 다지고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전을 공유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수단이 현지에서의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활동이었던 것이다. 지난 시간들이 조금씩 미화되

고 있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명이 함께 한국의 여름과 캄보디아의 여름을 보낸 시간은 매우 강렬했고, 열정적이었으며, 소중한다는 것이다.

 김*량 (교육학)

준비과정에서 다소 힘들고, 많은 체력이 소모되었지만 11박12일을 활동을 통해서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과 기억을 얻을 수 있었다. 11박 12일의 캄보디아 하계봉사단의 소중한 추억을 개인소감문을 통해 풀어내고자 한다.

2017활동의 경우 11박 12일 동안 3일은 이화 센터, 2일은 초등학교 위생/환경 교육, 1일은 벽화, 그 외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봉사를 실제로 행했던 기간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센터3일과 초등학교 3일 구성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센터의 경우에 변수가 적은 환경에서 준비해 나간 것들을 잘 풀어나가면 되는 다소 안정적인 수업이었다. 정해진 공간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캄보디아 현지 교사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학용품과 준비물들 역시 잘 준비된 편이었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만나면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준비된 공간이었다. 다양한 활동들을 좋아하고, 잘 따라주는 학생들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교는 여러 반에 들어가면서 수백 명의 학생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살아있는 현장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화봉사단이 준비한 지식적 내용을 전달하는 20분의 짧은 수업이어서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은 적었으나, 캄보디아의 환경을 잘 느낄 수 있는 초등학교 수업을 통해서 캄보디아 학생들에 대해 더욱더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비 오는 천막에서 소리를 지르며 수업을 했던 것이다. 비는 쏟아지고, 야외에 천막으로 설치된 간이 교실에서는 빗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고, 아이들은 우산을 쓰고 수업을 듣고, 선생님들은 목소리 전달을 위해 소리를 지르며 수업을 했어야 했다. 예상하지 못한 비와 환경에 당혹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봉사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캄보디아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초등학교 수업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역시도 부족한 정보로 인해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

봉사 시간 외 시간들은 봉사 직전의 워크숍, 주말을 통한 캄보디아 현지 이해시간으로 구성되어었는데 킬링필드를 통해 캄보디아 역사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캄보디아의 비극적 역사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가장 잘 도와준 활동이었다. 이 외에도 러시안 마켓, 프놈펜 왕궁에 직접 가보면서 캄보디아 현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11박 12일 동안 20명의 이화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화와 이화인들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화라는 공통점과 끊임없는 교류, 대화로 봉사활동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완성시켰다는 성취감과 뿌듯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일 것이다. 좋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의 시야를 넓히고, 많은 것을 친구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몇 가지 아쉬웠던 점들은 이화봉사단의 목표가 봉사활동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활동이라는 점을 워크숍 1박2일 기간에 조금 더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캄보디아 현지 환경에 대한 정보가 다소 미흡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아쉬운 점의 경우, 봉사단 워크숍과 관련된 것인데 워크숍을 통해서 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설명과 먼저 다녀온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은 것은 좋은 경험이

었다. 그러나, 워크샵에서 하루를 함께 보내면서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봉사단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전달하면 프로그램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워크샵에서 보내는 1박2일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샵을 통해 이화봉사단의 목적이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에 대한 것을 주체적으로 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 현지 환경에 대한 정보가 다소 미흡한 것은 원거리에서 메일을 통한 정보전달, 사진을 통한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이화캄보디아사회복지센터의 이전으로 인해 사전정보가 매우 부족한 편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다음 번 이화봉사단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와, 철저한 사전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와 같은 여러 번의 여행연습을 미리 해보고 가는 것을 조언해 주고 싶다. 다음번의 경우 이화센터에 대한 사전정보가 어느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봉사준비가 가능할 것이 기대된다.

 김*영 (경제학)

드디어 11박 12일 동안의 캄보디아 해외 봉사 일정이 끝났다. 처음 만났던 5월, 정신없이 준비하던 6,7월간의 일정을 돌이켜보면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소감문을 쓰고 있다. 캄보디아에 첫 발을 내딛었던 7월 12일에도 11일 간의 일정이 막연히 길게만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 놀랐던 기억이 남아있다. 캄보디아에 다녀온 후 주변에서 봉사를 하며 어떤 것을 느꼈는지 물어볼 때마다 너무 느낀 것이 많아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곤 했다. 이 글에도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에서 보았던 것, 느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당시를 생각하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보았던 창밖의 캄보디아 풍경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예상했던 모습과 비슷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상을 뛰어넘어 놀랐던 기억이 난다. 울퉁불퉁 포장되어 있지 않은 도로, 보기만 해도 아찔하게 이리저리 엉켜 있는 전선줄, 수많은 오토바이, 신호등과 도로경계선이 없어 혼잡한 거리. 가장 놀랐던 것은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였다는 점이다. 분명 지나가면서 자동차 밑에 고인 물로 세수하는 어린 아이를 보았고 곧 쓰러질 것 같이 허름한 건물을 보았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외제차나 대저택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숙소 근처에 있었던 네일샵도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사실 봉사하러 방문한 캄보디아의 발전이나 국력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선민의식이라 해야 하나, 일종의 특권의식을 내비치는 것 같아 경계해야함이 마땅하지만 주말에 방문했던 킬링필드를 통해 캄보디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 사전 조사를 통해 크메르루즈에 대해 미리 알고 갔지만, 킬링필드에서 알게 된 현실은 더욱 참혹했다.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한 이 대학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죽게 되었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캄보디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캄보디아의 역사를 알수록 비록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었다. 사실 돌이켜보면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센터나 초등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모두 너무나도 진지한 자세로 수업을 들어줘서 고마운 마음이 크다. 그 더운 날 50명이 넘는 인원이 교실에 뻘뻘하게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동이를 사이좋게 나누어 들고 오던 모습, 비가 올 때면 물웅덩이 안에서 첨벙첨벙 놀던 모습, 창문 밖으로 다른 반 수업하는 것을 지켜보던 모습, 쉬는 시간이면 우리가 신기한지 다가와 사인해 달라 부탁하던 모습까지 모두 다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다가와서 인사하고 사인해 달라 했을까.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아이들과의 만남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아쉽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함께 만났던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고 서로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던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까지도 눈이 선하다.

해외봉사라는 이름하에 캄보디아로 떠난 것이지만, 우리가 매우 편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온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봉사라고 해서 억지로 힘든 환경에서 고생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했던 중심지 '프놈펜' 거리의 모습, 특히 우리가 묵었던 숙소와 먹었던 음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포첸통 초등학교에 방문했을 때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했지만, 포첸통 초등학교는 수도인 프놈펜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먼 시골 마을에는 아예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캄보디아의 한 달 평균 월급과 비교하면 우리가 묵었던 숙소

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조차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한 번 더 캄보디아에 방문해보고 싶다. 프놈펜을 벗어나 다른 풍경을 갖고 있는 시골 마을도 가보고 싶고 문화 관광의 중심지라는 씨엠립에도 가고 싶다. 더불어 기회가 된다면 장기해외봉사활동에 또 한 번 참여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는 바가 많아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던 것 같다. 이번 봉사활동을 발판 삼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하고 또 내 자신도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소감문을 마친다.

 김*영 (영어영문학)

5월부터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온 11박 12일의 짧다면 짧고 기다면 긴 봉사가 끝이 났다. 처음 가는 해외봉사인데다가 학교를 대표하는 이화봉사단의 이름으로 떠나게 되는 봉사는 설렘과 동시에 긴장이 되기도 하였다. 20명의 단원들과 서로 협력하여 합을 맞추어 가는 과정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 학기 중에 매주 1교시에 하는 회의하고 방학이 시작한 후에는 거의 매일 만나서 회의를 했던 기억이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다들 빠짐없이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고 봉사를 준비하는 활동에 임해주었기에 문제없이 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기 전엔 캄보디아의 날씨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캄보디아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가 와서인지 살짝 습하였지만 한국에서 걱정했던 것만큼 더운 날씨는 아니었다. 오히려 캄보디아에 지내는 동안 폭염이었다던 한국에 비해 캄보디아가 덜 더웠던 느낌이었다. 첫 날 호텔에 도착하였을 때 숙소가 정말 좋았다던 작년 팀의 말에 비해 좋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호텔에 관해서 호텔 소식도 괜찮았고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지만 특정 층은 와이파이기가 잘 터지지 않았고 호텔 방에 개미가 많이 기어 다녔던 점이 아쉬웠다.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자고 난 후 다음날은 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오티를 하는 날이었다. 오전에는 주성아 선생님께 이화 RUPP에 대한 오티를 듣고 오후에는 우리 봉사단이 3일 동안 봉사를 진행하게 될 센터로 가서 센터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둘러보고 후에 벽화를 그리게 될 벽과 벽화 물품을 구매하였다.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었던 센터가 올해 이사를 하여 옮긴 장소라 작년 팀에게 센터 환경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는 없었기에 다들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갔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센터에 비해 선풍기도 있고 위층에는 에어컨도 있어 시원한 편이었지만 수업을 하는 장소가 폭이 좁고 길이가 길어 나중에는 수업 위치를 세로에서 가로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였다.

첫 날 센터에서 봉사를 했을 때 정신없고 피곤했던 것도 잠시 아이들을 보며 힐링이 되는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 3일간의 센터 봉사 후 센터 외벽과 내벽에 벽화를 그리는 활동을 하였다. 다들 벽화 그리기는 처음이라 미숙했지만 철저히 준비해 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벽화봉사 후 다음 2일 간은 지역 초등학교인 포첸통초등학교에 가서 위생과 환경 교육을 하였다. 이화 사회봉사센터에서도 처음으로 진행하는 초등학교 봉사라 그런지 걱정과 기대가 컸지만 열심히 준비해 간 덕분에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이 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주말에는 킬링필드, 캄보디아 왕궁, 러시아인 마켓, 이온몰 등을 방문했다. 킬링필드 방문을 통해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킬링필드와 캄보디아 왕궁 같은 경우에는 방문 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간 덕에 그저 유명한 유적지 방문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미리 공부해 간 것을 토대로 실물을 느껴 보며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학습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출국 전 마지막 날에는 KOICA를 방문하여 KOICA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화봉사단을 통해 처음으로 해외봉사를 캄보디아로 떠나며 준비과정에서 봉사를 하기 까지 힘들기도 하였지만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에서 정말 잊지 못할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게 되었다. 처음에는 길게만 느껴졌던 봉사 기간이 캄보디아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어느덧 귀국

이 가까워져 조금 더 오래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평소 국내 교육 봉사를 꾸준히 해왔지만 해외 교육 봉사는 처음이었기에 더욱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봉사정신과 더불어 이웃사랑 정신을 기를 수 있었고 이화봉사단을 했던 것을 경험 삼아 앞으로도 평상시에 주변에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해야 함을 느꼈으며 이 경험을 발판 삼아 후에도 다양한 해외봉사를 경험하고 싶다고 느꼈다.

 방*은 (화학나노과학)

이번 여름에 이화봉사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다. 작년에 국내봉사단의 기억이 좋게 남아서, 또 다른 봉사도 해보고자 해외봉사단에 지원했다. 미국 대신 캄보디아를 선택한 이유는, 더 많은 봉사단원과 함께하고 싶었고, 더 열악한 환경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다양한 과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캄보디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캄보디아에 가게 되어 정말 감사하단 생각이 든다.

봉사단 준비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모든 봉사단원들이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준비 과정 중에 지치지 않고 힘낼 수 있었다. 특히 몇몇 분들은 1인 1역이 아닌 1인 2-3역을 담당해 주셨는데, 매우 감사하고 죄송했다. 특히 리더님께서 20명의 인원을 담당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리더님을 포함한 봉사단 모두가 이번 봉사가 좋은 추억, 좋은 경험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 회의와 모임을 거치면서,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10번 이상의 회의와 많은 일을 하며 봉사에 대한 마음이 점점 불만과 스트레스로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에서 아이들과 맞닥뜨리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여러 변수들을 맞이하면서, 이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사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이 모두 헛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회 없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더 뿌듯했다.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회의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반성하게 됐다.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우리의 수업을 잘 들어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호응이 정말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센터 아이들이 준비한 만들기, 꾸미기, 이론 수업 모두 호기심을 갖고 집중해 주어 고마웠다. 특히 태권도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학생들이 주먹, 발차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커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마지막에 흰띠와 주먹을 지르는 사진을 받는 아이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위생 수업의 손 씻기, 양치하기를 정말 재미있게 따라했고, 환경 수업 때는 수업 중이나 수업 이후에 서로 앞다투어 쓰레기를 버렸다. 칭찬을 받으려고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뿌듯했다. 이번에 초등학교 봉사를 처음 해봐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는데, 수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다행이다. 센터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중요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벽화 봉사에 비록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봉사단원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중 벽화 봉사를 해본 적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도 벽화팀들이 준비를 잘 해주셔서, 그리고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벽화를 그릴 수 있었다. 이번에 초등학교 봉사도 그렇고 벽화 봉사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찾고 계획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다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놀란 건 빈부격차가 정말 크다는 것이다. 도심에 있는 여러 고급 시설들, 외제차, 부잣집 캄보디아 사람들은 현지 사람들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큰 곳에서 센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이외에 다른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다. 캄보디아의 더 많은 이면을 보지 못해 아쉽다. 기회가 생긴다면 캄보디아에 다시 봉사를 가고 싶다.

캄보디아 학생들은 정말 똑똑하고 순수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캄보디아의 미래가 기대된다. 앞으로 캄보디아가 예전의 우리나라처럼 빈곤한 상황을 이겨내고 강한 나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19명의 봉사단원과 여러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캄보디아의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정말 기뻐다.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배*수 (통계학)

처음 이화봉사단 캄보디아에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볼 무렵에는, 이렇게 봉사를 다녀와서 소감문을 쓰는 그 날이 굉장히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생각보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영원히 안 올 것 같았던 캄보디아에 가는 날은 어느새 지나가버려 마치 꿈을 꾸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번 이화봉사단-캄보디아 팀은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 20명이나 되는 인원과 함께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 자체로도 큰 도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리더 라는 큰 직책을 맡게 되어 더욱 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다.

지금에 와서야 돌이켜보면 리더라는 직책을 잘 완수했는가에 대하여 끊임없는 되물음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처음 리더를 하게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큰 일이 되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전혀 괜찮은 것들이 아니기도 하였다. 단순하게는 나와 19명의 봉사단원들 이었지만, 사회봉사팀 선생님, 캄보디아의 많은 선생님과 담당자 분들 모두와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경험이 되었다. 그래도 큰 문제와 아픈 사람 없이 모두 제 몫을 다 하고 돌아온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느낀다. 소감문을 쓰는 김에 모두에게 짧게나마 편지를 남기고 싶다.

‘아 이것이 바로 사범대생의 교안이구나.’를 느끼게 해주었던 녀나 예쁜 우리 미소천사 여량쓰/ 우리 귀염둥이 착한 마음씨를 가진 성경이 아직도 마지막 회의 장소에 대한 절규를 잊지 못한당ㅋㅋ / ‘왜 데뷔 안 하니!?!?!?’ 항상 힘들 때마다 비타민이 되어 준 빨간 티 착불 지영이 / 내가 정말 마니 좋아한다고 외쳤던 희재!! 너의 시니컬함이 좋아!! 벽화 때 건축학과의 면모를 벌집에서 보여주었지 / 우리 귀염둥이 에너지이져 아름이! 툭 던지는 한마디가 항상 뽕뽕 터져서 좋았당ㅋㅋ / 우리 팀 공식 프놈~1인자 희주언니♡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언니가 제일 웃깁니다! / 벽화 때 녀나 고생 많이 한 또 하나의 프놈 수연쓰~ 뭔가 벽화팀에 들어와서 이일 저일 많이 같이 해서 녀나 고마웠당♡ / 캄보디아에서 이런저런 고생 많았던 우리 지현이 ㄸ프놈천국 벽화팀에서 고생 많았당 그래도 항상 끝까지 열심히 해줘서 멋졌어! / 우리 팀 공식(이라고 주장) 미스춘향!! 녀나 아름다운 우리 하영이 맨날 내가 말하는 게 놀리는 거라 하지만 다 진심이었다아악! / 우리 팀 공식(이 왜 이렇게 많지ㅋㅋ) 귀염둥이 우리 한은이 이런저런 고생 많았지만 함께해서 녀나 행복했당! / 마이 룸메 호정쓰~ 공주님이라고 맨날 놀려서 툭툭했지만 난 알아,,, 네가 날 참 좋아한다는 것을(코 쓰옥) / 우리 지은이~~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 깊다! 카톡방에서 항상 반응 많이 해줘서 참 고마웠다는 것을 항상 말하고 싶었당!! / 우리 팀 막내가 원경이!! 막내미 뽕뽕 하며 우리 팀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는 것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95로 오해 받는 게 슬펐던 세령이! 준비하는 회의 때도 캄보디아 가서도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녀나 고맙당(하트) / 우리 예쁜 예지니!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에 큰 힘을 얻었었당! 같이 놀러 가면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 / ‘왜 데뷔 안 하니222’ 우리 팀 공식 아이도루★ 지원이!!! 언제 한번 공연 꼭 보러 갈 것이다!!!! / 공식 프놈 주희언니♡ 언니한테는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당 ㄸ 사랑해요우 / 우리 물품팀장 윤아~ 물품팀장 하느라 고생 녀나 많았당! 그래도 즐거운 일이었기를!! / 또 하나의 막내가 라인 예빈이! 친해지고 나서 반전을 많이 느꼈다 ㅋㅋ 마냥 어른스럽고 영어 짱,,오오 라고 느

졌었는데 넘나 귀요운것!!

그리고 캄보디아 활동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진윤경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실 상 벽화 계의 숨은 능력자이십니다! 캄보디아 팀의 활력 다크호스 원영석 교수님! 식사 시간마다 즐거웠습니다! 내부 벽화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엄청난 저녁을 매번 안내 해주신 주성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피자 집에서 선생님과 나누었던 많은 대화들이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무런 큰 일 없이 캄보디아에 다녀올 수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이러한 경험이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특히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것 다양하다는 것이 또한 무척이나 의미 있었다.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보였다. 3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 다양한 활동들과, 그 나라의 공립 초등학교의 수천여 명의 아이들 앞에서의 수업은 굉장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벽화를 그려보거나 킬링필드, 왕궁 등을 느껴보는 것 또한 의미 있었다. 우스갯소리로 이번 이화봉사단 캄보디아 팀은 경험 종합선물세트가 아닐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 그 모든 것들이 캄보디아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 캄보디아로 떠나는 비행기에서는 11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막상 가니 하루하루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서 너무나 아쉬웠다. 기회가 되면 캄보디아에 꼭 또 다시 가보고 싶다.

 서*아 (식품영양학)

이번 캄보디아 봉사가 지금까지의 내 인생의 봉사 경험 중 가장 큰 의미로 다가왔던 봉사라고 생각한다. 일단, 첫 해외봉사라는 것에서도 그렇겠지만, 그에 앞서, 누군가를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배웠다. 교육봉사 시작 두세 달 전부터 단원들과 회의를 하고, 수업준비를 하면서, 시험 준비와 병행을 하며,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봉사를 가서도, 그들에게 내가 노력한 정도 그 이상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교육봉사 말고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의료적 지원을 해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미 있는 재능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일들 말이다. 그런 봉사들을 꾸준히 해본 나에게, 이번 봉사 활동이 가장 큰 의미로 다가왔던 이유는 '내가 나의 영역을 가장 많이 포기하고, 타인을 섬겼기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했기에, 처음에는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10일간의 캄보디아에서의 봉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려고 열중하는 태도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봉사를 꾸준히 해오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온 열정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운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상대방이 기뻐할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는 수많은 봉사를 해오면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적은 많이 있었지만, '행복'을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캄보디아 봉사를 가서, 단원들과 최선을 다하면서, 그 속에서 그들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행복했다.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러했겠지만, 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함께하는 것'의 힘을 배울 수 있었고, 서로가 '섬김'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배웠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선한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일이기에, 좋은 일이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것 이상의 의미를 배웠기에 감사하다. 열정을 가지고 타인을 돕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단원들과 소통을 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다. 더 나아가, 나와 우리 단원들 모두가 이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가 사회에서 섬기고자 하는 위치와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공유했던 경험의 가치를 잊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성*현 (컴퓨터공학)

센터에서 수업을 하는 3일 동안은 3층 교실의 빔과 스피커를 담당하였다. 수업 시작 전에 스피커와 빔을 설치하고 수업 중에는 피피티 관리를 하거나 준비물 교사 혹은 보조교사를 하였다. 그 외에 벽화와 주말 관광을 담당 하였고 초등학교 수업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였다. 주말 관광 주말의 일정을 짜고, 일정 중 하나인 왕궁에 대해서 피피티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였다. 주말 일정은 토에 러시아인 마켓과 킬링필드, 일요일에 왕궁을 계획하였다. 벽화는 내벽과 외벽, 조색으로 역할이 나뉘져 있었는데 외벽 2개 중 하나를 담당 하였다. 초등학교 보조교사는 위생수업의 두 번째 파트 교사와 환경수업의 보조를 맡았다.

센터 수업에서는 3층을 담당해서 어린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많았다. 수업 중에는 보조교사와 준비물 교사를 모두 해볼 수 있었는데, 그 만큼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수업 중에 동영상을 틀어야 할 때는 정확한 때에 틀어야 해서 수업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했다. 주말 일정을 짤 때는 캄보디아가 더워서 12시에서 3시 사이의 시간은 피해서 일정을 만들었다. 러시아인 마켓은 싼 값에 쇼핑할 수 있었고 킬링필드는 오디오 가이드가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는 수업이 아침 일찍 시작해서 20분씩 10개의 수업을 해야 했는데 주교사 외에 보조교사가 하는 수업 내용을 파트를 나눠서 수업을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일찍 끝났을 때 뽀로로를 틀어 주면 아이들이 1층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3층은 오후가 되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커튼을 내리지 않으면 피피티가 흐릿하게 보였다. 또한, 노트북에 따라서 빔의 선명도가 달라져서 마지막 날 피피티가 흐릿하게 보였던 점이 아쉬웠다. 아이들이 노트북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만졌는데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마땅히 없어서 아쉬웠다. 빔을 벽으로 쏘아야 했는데 높이가 맞지 않아서 의자와 워크북 통을 이용해야만 했다. 주말 일정은 시간에 맞춰서 짰는데 캄보디아 교통상황으로 인해서 시간이 매우 유동적이었다. 왕궁은 사전조사를 통해 피피티를 준비 했으나 전문 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웠고 실버 파고다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왕궁 안에서도 헤맸다. 초등학교 수업은 아침 일찍부터 수업이 많아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수업을 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해야 했는데 목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다. 금요일부터 체력이 떨어지고 아프기 시작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빔의 선명도를 최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잘 보이지 않았다. 주말 일정을 할 때 왕궁의 경우에는 가이드를 신청해서 캄보디아의 역사와 왕실, 왕궁의 설명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정을 짤 때 캄보디아의 교통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수업은 수업 수가 많고 교실에서 큰 소리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전날 체력을 보충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활동에 집중도 잘 해주어서 준비한 만큼의 보람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체력이 약해서 중간에 많이 아팠다는 것이 아쉽다.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봉사인 것 같다.

 신*희 (사회복지학)

캄보디아는 이화사회복지센터와 함께 왕립 프놈펜 대학 내 사회복지학과가 설립된 곳으로 꼭 한번쯤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번 2017 여름 이화봉사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과 함께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기획팀장으로 활동하며 활동할 주제와 내용을 앞서 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 더욱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팀장으로 활동하며 더욱 더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 등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학 전공생으로서 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었고, 현지 사정과 사업들을 보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단원들 중 고학년이며 팀장이라는 자리로 많은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단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주로 한식을 먹고, 고정된 호텔에서 숙식을 하는 등 봉사단원들을 위한 여러 조치에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생활 자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의 여러 제반 환경들이 봉사활동에 위주로 짜여 있어 단기간이지만 에너지를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현지의 사정, 그곳 아이들이 처한 환경 등은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했습니다. 특히 이번 2017 봉사단이 단기봉사단으로서는 처음 가게 된 포첸통초등학교를 보았을 때 한 교사당 학생 수, 교실 주변 환경, 선생님들과 학교 자체의 체계화 정도 등 많은 부분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고 앞으로써 캄보디아에서의 복지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한편, 국가적, 사회적인 상황 등 상황적 한계를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과 함께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하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하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시도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실행해 내기도 했고, 이미 잘 아는 것들을 아이들 눈높이와 상황에 맞게 잘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봉사활동, 교육, 해외체류,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경험을 총망라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국제학)

다른 어떤 생각보다 이번 여름 캄보디아 봉사가 잘 끝나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가장 먼저 든다. 출국하기 전 많은 기대로 했지만 다른 팀원들도 그랬듯이 대부분 걱정이 많았다. 특히 3일 차 수업의 경우 실제 태권도 수업을 정해진 방 크기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저희가 준비한 신체 수업 내용과 활동을 학생들이 좋아할까 하는 의문이 항상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그 전날 잠을 줄여가면서 팀별 회의 때 시간 배분과 교안 수정을 한 보람이 있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태권도를 거의 처음 배워보는 입장에서 앞에 나가서 시범도 해보고 격파 잡아주었던 기억이 활동이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였겠지만 저 또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거 같다. 하지만 주교사로 활동했을 때는 촉박한 시간, 활동 진행, 수업 진행 등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니 애들과 눈 맞추면서 교감할 시간이 많이 없었다. 그에 비해 보조교사는 학생들 이름도 알게 되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장난도 치면서 교류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쉬는 시간 애들과 손뼉 치기 놀이도 하고 현지 아이들이 즐겨 하는 다양한 놀이를 배우고 같이 했던 시간이 가장 좋았던 거 같다. 애들과 함께 진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같이 웃고 떠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센터의 아이들과 친해지기 예는 3일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던 거 같아서 아주 아쉬웠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까지 다 합쳐서 이었기 때문에 애들의 얼굴을 일일이 다 보지 못했었다. 워낙 많은 학생이 있고 20분 동안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때에는 애들과 겨우 눈을 맞추거나 하이파이브 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업과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 때 학생들이 봉사단원들을 둘러서서 사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안아달라고 하기도 해서 그때 많은 교류를 했던 거 같다. 초등학교에 갔을 때 다들 느꼈지만, 우리 환경/위생 교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학교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다. 공사현장 중간에 학교를 세운 것과 같이 벽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교실 앞에는 쓰레기로 인한 악취, 화장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환경미화 활동으로 이런 환경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학생들이 더욱 집중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갑자기 비가 왔는데 학생들이 맨발로 공사현장 부품이 많은 곳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서 많이 미안했었다.

캄보디아를 처음 오기 전 더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는 않았다. 주로 버스로 이동하고 호텔에서는 무한대로 에어컨을 틀 수 있으므로 활동할 때 만 땀을 흘렸던 거 같다. 어떤 날은 한국이 캄보디아보다 더 더웠을 만큼 더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조식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아쉽게 먹은 적이 없으므로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조식은 팬케이크가 가장 맛있었다. 시럽이랑 같이 먹은 팬케이크는 최고였고 옆에 놓여있는 티 또한 아침을 여는 데는 완벽하다. 저는 캄보디아를 갈 때 캐리어 대신 가볍게 백 팩을 가지고 갔었다. 갈 때는 괜찮았지만 올 때 오히려 러시안마켓 등에서 산 내용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되도록 불일 수 있는 캐리어를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활동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해답을 찾은 거 같다. 여름 방학을 다 투자할 만한 가치와 의미는 분명 있지만, 선불리 그냥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는 지원한다면 말리고 싶다. 도전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경험이었다. 사랑해용 다들 <3

 이*름 (화학신소재공학)

내가 캄보디아 봉사를 가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러어나'라는 '잘했어요'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박 11일 동안 만난 대부분의 캄보디아 아이들은 맑고, 순수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외국인인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고, 쉬는 시간이면 함께 장난도 치면서 살갑게 대해주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담아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크메르어를 한국에서 더 많이 배우고 가서 다양한 칭찬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봉사하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칭찬의 종류는 몇 가지밖에 되지 않아서 아쉬웠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호텔에 돌아오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쏟아지면서 쓰러져서 잤다. 신기하게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때에는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꼈던 적이 없었다. 아마도 아이들이 내게 주는 에너지가 상당했고, '내가 언제 이런 것을 또 해보겠나?'하는 생각에 불끈 불끈 힘이 솟아났던 것 같다. 특히 포천통 초등학교에서 했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날씨가 더워서 습식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땀이 쉴 새 없이 줄줄 흘렀는데 비가 쏟아져서 캄캄한 교실에 전등도 켜지지 않고, 준비해간 전지를 붙여가며 수업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 속에서도 수업에 열심히 집중하고,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발표하고, 발표하고 있는 친구에게 모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 수업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웠는데 수업 끝날 때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감사하다고 '어곤 티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행복했다. 마지막 초등학교 수업 날에는 아이들과 헤어질 때 진심으로 건강하고, 해맑은 웃음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면서 인사했다.

이화사회복지센터에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다. 센터로 봉사 가던 첫 날 버스가 센터 앞을 지나갈 때 센터 아이들이 다 같이 버스 쪽을 바라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이들에게 앉아 달라고 '쏘음 엉꼬이 쪼'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 둘씩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잘 알지 못하는 서툰 크메르어로 직접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좋았다. 또한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진심은 전달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센터에 3일 밖에 가지 않아서 센터 수업 마지막 날 인사할 때 '이들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더 확실하게 외우고, 크메르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더 배워 가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센터에 벽화를 그려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당황스럽고, 와 닿지 않았는데 벽화 그리는 날 언니들이 연필을 들고 벽에 스케치를 할 때서야 제대로 실감이 났다. 사실 그 전까지는 벽화 그리는 것이 마냥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고만 생각했는데 언니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밑그림을 그리고, 옆에서 장갑에 페인트를 다 묻혀가면서 조색을 하는 것을 보니 생각하는 것만 큼 간단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 평소에 손재주가 없고, 수전증이 있는 나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내벽의 나뭇가지를 색칠했고, 철문에 연두색으로 산을 색칠했다.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비가 와서 열심히 색칠한 벽화가 흘러내렸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다른 단원들의 노력으로 다시 회생되었고, 완성된 벽화를 봤을 때 기대 이상으로 훌륭해서 뿌듯했다. 센터 아이들이 벽화를 보고 가끔씩 우리를 잊지 않고 떠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캄보디아에 다녀와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함께 일을 할 때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낀 것이 소중한 배움이었다. 2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을 하며 단 한 번의 말다툼과 갈등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웠고, 다행스러웠다. 한 편으로 아쉬운 부분은 캄보디아에서 봉사할 때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왜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럼에도 내게 캄보디아 봉사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이*경 (사회복지학)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방학을 이화봉사단으로 보내게 되어 매우 보람차고 뿌듯하다. 봉사단에 선발된 17학번이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언니들과 선생님께서 오히려 너무 잘 챙겨 주셔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게 더욱 열심히 활동한 것 같다.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종강 후 출국 전까지였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기간 동안 회의를 정말 많이 했다. 특히 출국 2주 전에는 매일 매일 만나서 시연+회의+물품 정리의 반복으로 하루를 갈아 넣었었다. 하지만 그 기간이 항상 힘든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어색했던 언니들과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을 같이 헤쳐 나가면서 더더욱 돈독해졌고, 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끈끈한 팀워크로 발전되었다. 또한 회의할 때마다 제공되는 식비로 학교 주변에 있는 배달 음식은 모두 시켜 먹은 것 같다. 출국 전날은 물론 공항에 모여서까지도 드디어 봉사활동을 하러 떠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었다. 사실 출국하기 전에는 걱정들이 정말 많았다.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물갈이가 심하면 어떡하지, 날씨가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면 어떡하지, 벌레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등등 각종 걱정들을 사서 했으나, 도착하고 나서 직접 활동해보니 이런 걱정들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날씨는 나쁘지 않았고 음식은 입에 너무 잘 맞아 오히려 체중이 늘었고, 벌레는 많이 없었다. 사실 혼자 왔거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왔으면 단점으로 느껴졌을 부분이 이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활동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하다 보니 단점은 단점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같이 웃고 넘길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보면 막내의 버릇없음으로 느껴질 수 있던 행동들을 모두 유머로 받아 주시면서 넘어갔고, 이화봉사단을 담당하셨던 진윤경 선생님조차 막내의 애교로 받아 주셨다. 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예상했던 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수업 재료가 모자랐던 것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센터로 와주었고, 그 결과 마지막 날 준비했던 선물의 수량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위층에서 수업한 학생들에게는 태권도 흰 띠를 주지 못하였다. 수업을 진행할 때 나의 말도 안 되는 캄보디아어를 아이들이 알아듣고 행동해 주는 것도 보람찬 일이었다. 물론 몇몇 캄보디아어는 발음이 이상한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 이름표 뒤가 뽀뽀하게 채워질 정도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캄보디아어 통역 분께 물어 물어 적었다. 마지막 날에 회의가 끝나고 한 방에 모여 워크북 뒤에 롤링페이퍼를 적은 것도 너무 좋았다.

이번 이화봉사단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과분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센터에서는 처음 보는 아이들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웃어만 주어도 나에게 안기면서 예쁘다고 말을 해주었고, 가만히 있어도 주변으로 와서 말을 걸어주었다. 나의 말도 안 되고 짧은 캄보디아어에도 통역 선생님들은 잘한다고, 발음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입봉단의 언니들은 가끔은 선을 넘는 나의 행동조차도 웃으면서 귀엽다고 넘겨주시며, 정말 과분한 사랑을 주셨다. 이번 이화 봉사단 활동은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 동안 나에게 많은 힘이 되어 줄 것 같다. 4월 달로 돌아간다면 이 활동에 지원한 나를 매우 칭찬하고 싶다. 거의 3달 동안 아무런 사고나 분쟁 없이 무사히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리더님과 물품 팀장님, 기록팀장님, 기획팀장님의 노력 덕분인 것 같다. 이화봉사단을 위해 고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으며, 진윤경 선생님께도 10박 11일 동안 정말 많이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배운 것이 많다고 전해드리고 싶다. 입봉단 모두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해요. 역-균

 이*주 (체육과학)

예전에는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보면 그 나라를 잘 모르기도 했고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다녀온 후로는 영문이든 우리말로든 캄보디아가 써져 있는걸 보면 반응하게 된다. 괜히 반갑고 내가 어느새 캄보디아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때의 기억들이 생각나 웃음 짓게 되고 그리워하고 있다.

처음엔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아 머리 아프고 정신적으로 지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의 준비가 끝나고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에 느낀 설렘과 캄보디아에서 봉사하는 동안 느낀 뿌듯함과 성취감은 절대 못 잊을 것 같다. 센터 수업, 벽화 그리기, 초등학교 수업 뭐 하나 쉬운 건 없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캄보디아에 있는 내내 신나 있었다. 솔직히 그렇게 걱정 없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신날 수 있는 순간이 요즘에는 많지 않았기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다. 특히 태권도를 가르치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타이트한 봉사단 일정에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워낙 즐거운 분위기다 보니 그 속에서 다들 힘내서 더 열심히 봉사했던 것 같다. 밥이 맛있었던 것도 크게 한 몫 한 것 같고... 주말 관광 일정도 캄보디아를 알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 그냥 다 좋았다. 19명의 친구들과 봉사를 준비하던 시간들, 캄보디아에서 함께 노력하며 웃으며 보낸 시간들이 물론 그 순간에도 행복했지만 지나와서 보니 훨씬 더 소중한 순간들임을 깨달았다. 같이 활동을 한 19명의 친구들과 캄보디아의 아이들의 순수함과 긍정적인 마음, 성실함, 열정 등을 느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삶의 태도라던가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고, 봉사하러 갔지만 그 안에서 내가 더 배울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 경험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 것 같다.

근 한 달 동안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 지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꿈같기도 한데, 그래서 혹시나 꿈처럼 내가 한 순간만 느끼고 말까 봐 이 활동을 하며 느낀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한다. 시험기간에 지쳐있던 내게 온 한 통의 문자가 이렇게나 큰 행복을 가져올지 전혀 생각 못했다. 캄보디아를 떠올렸을 때 잘 모르는 것이 아쉬워 경험해보고자 신청한 이화봉사단에서 배움은 물론 수많은 인연과 추억을 선물 받았다. 최고였다. 어-꾼.

 전*은 (생명과학)

벌써 캄보디아에 갔다 온지 2주가 지났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 꽤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도 캄보디아에서의 힘들기도 즐거웠기도 했던 시간들이 생생한 것 같다. 7월 11일 5시간을 날아 도착했던 캄보디아에서도 정말 시간이 빨리 갔었던 것 같다. 첫날에 도착해서는 늦은 시간이라 숙소로 도착해서 바로 잠이 들었다. 이때 숙소로 가는 길에 나는 캄보디아의 모습을 밤에 처음 보았던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가로수들로 밝고 깨끗한 건물들이 좋아 보였지만 쓰레기가 길거리에 정말 많았던 것 같다.

호텔에 도착해 잔 후 다음날에도 특별한 일정 없이 맛있는 밥을 먹고 우리가 수업할 센터의 모습과 수업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센터에 잠깐 들렀다. 올해 새로 이사를 했다는 센터는 내가 계속 보조교사로 있었던 아래층에는 없었지만 위층에 에어컨도 있었고 굉장히 깨끗했다. 우리는 ppt, 노트북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내일 수업을 준비했다.

다음날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센터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초등교육 주 교사였기 때문에 센터 수업에서는 계속 보조교사 일을 맡았다. 설명 위주의 수업에서는 다 같이 앞을 보고 수업을 들었고 이제 활동 수업이 시작되면 보조 교사와 준비물교사가 팀이 되어 아이들 5~6명의 한 팀을 맡았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잘 따라주어 나도 즐거웠다. 첫날에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친구들에 대해 알게 해주기 위해 자기소개나 아바타 그리기 등 활동을 했고 활동지를 워크북에 붙여서 보관했다. 우리는 오전 오후 각각 다른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같은 수업을 2번 했는데 오후반 아이들이 오전반 아이들보다 훨씬 많고 집중하기 힘들어했던 것 같다. 하지만 2일 3일이 지나면서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집중도 더 잘 해주었다. 2일에는 지문 채취, 지문나무 만들기 등 과학, 미술 활동을 했었다.

2일차 후에는 주말이 끼어서 캄보디아 관광을 다녔는데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인 킬링필드를 돌아보고 러시안마켓에서 여러 가지 캄보디아에 온 것을 기념할 만한 물건들을 살 수 있었다. 일요일에는 3일차에는 마지막으로 아이클레이로 음식 만들기, 태권도 배우기 등을 했다. 마지막 날에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즐겁게 잘 따라와 주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웠다.

그렇게 센터 수업이 끝나고 다음날 벽화 봉사를 했다. 우리가 수업을 했던 센터의 앞, 옆 벽에 벽화를 그리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즐거웠다. 나는 다음날 있을 초등교육을 준비하느라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처음 해보는 벽화 봉사였는데 나에게 너무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노랑 페인트가 부족할 뻔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비도 조금 오는 바람에 흘러내려서 마무리하는 분들이 고생하긴 했지만 우리는 무사히 벽화 봉사도 끝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 목 이틀간 우리는 초등 위생, 환경교육을 포첸통초등학교에서 진행했는데 내가 속한 팀의 경우는 2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수업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창문으로 계속 우리를 구경하고 우리가 오는 것을 보고 후다닥 자리로 들어가 앉기도 했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 귀여웠다. 원래는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오전 오후를 나누어 스케줄이 짜여져 있었지만 그대로 안 되어서 우리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수업을 할 때는 정신이 없이 지나갔지만 숙소 돌아와서는 정말 힘들어서 쓰러지듯 잤던 것 같다. 처음이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초등학교 수업 자체는 우리한테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아

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자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모든 수업이 마치자 긴장이 풀려서 인지 피곤이 확 몰려왔던 것 같다. 하필 초등수업 시작날 생리가 터져서 더 힘들었던 같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내가 뭐라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잘 참여 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수업하는 내내 좋았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으며 경험했던 것 같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들이 많았는데 꼭 형제의 나라인 것처럼 느껴졌고 앞으로 캄보디아가 역사를 통해 겪은 아픔을 잘 해쳐 나가고 더 발전되어서 아이들이 한 끼도 굶지 않고 학교 수업도 잘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다면 캄보디아에 또 가서 아이들에게 많은 걸 전해주고 싶다. 같이 갔던 봉사단원 친구들과 언니들 동생도 너무 다들 착하고 서로 배려해주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내 인생에서 앞으로 또 하기 힘든 정말 진귀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든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이때 경험을 생각하며 웃고 위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이 추천해주고 싶다.

정*재 (건축학)

준비과정에서는 학기 중에 시간을 내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싶었는데, 학기 중에 너무 바빠서 생각보다 열심히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 끝나고 보니 속상했다. 방학을 한 후에는 서로 많은 시간을 모여 활동을 준비하다 보니 이전 몇 달의 준비기간보다 훨씬 서로 친해질 수 있었고, 일 진행도 빨라서 좋았다. 사실 처음에는 봉사단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자유와 할 일이 있는지 몰랐다. 처음에는 일이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할수록 많은 것을 배우는 경험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을 진행하며, 평소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만큼,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었다. 준비과정에서 현지와 많은 소통을 할수록 아이들에게 교육적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것 같다.

현지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다. 음식은 원래 가리지 않는 편이라 전반적으로 입에 맞았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고, 아이들이 말도 안 통하지만 마음으로 다가와 줘서 고마웠다. 현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킬링필드 견학도 좋았고, 현지 사회복지사분과의 첫 날 수업이나 대화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센터시설도 생각보다 좋았으나, 가끔 정전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교육 시 많이 강조했던 현지의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는 말이 활동을 하면서 더 와 닿았다. 봉사단원들과 친해지고 팀웍이 좋아서 활동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에서 보다 캄보디아 학생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센터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고, 교육시스템도 잘 갖춰지지 않은 듯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는 아이들이 고마웠다.

현지에서 봉사단원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보니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헤어지기가 아쉬울 정도로 서로 가까워졌다.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며 아무 탈 없이 돌아온 모든 봉사단원들과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봉사 활동을 오랜만에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캄보디아에 있는 기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어딘지 우리나라와 닮은 모습들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런지 더 정감가는 곳이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프놈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

 조*정 (경영학)

캄보디아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다. 현지 아이들의 순진무구함에 힐링 받을 수 있었다. 어린 나이부터 학업으로 지쳐있는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캄보디아 아이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색종이로 하트모양을 접어주던 아이, 하트모양의 그림 속에 I Love you가 적힌 쪽지를 쥐어 주던 아이, 자신의 사진을 작별 선물로 주던 아이들. 이곳의 아이들은 사랑이 넘쳐난다. 쏟아지는 비에 우리가 건물 사이를 이동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우산을 건네주며 자신은 뒤에서 비를 맞으며 따라오는 아이와 물에 잠긴 운동장을 우리가 건널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블록을 옮겨주던 아이들은 모두 나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 아이들은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우리가 가르치는 수업이었지만 천막 틈으로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오히려 대학 수업 중 나의 학습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 만난 시간은 짧았지만 마지막 날 나를 부르며 'Will you come again tomorrow?'라고 묻는 아이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답하며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을 때 나도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고 안타까웠다. 우리가 쏟아지는 비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할 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빗속에서 물을 튀기면서 신나게 공을 차던 아이들. 우리와 달리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있는 듯했다.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 중 아쉬웠던 점은 캄보디아를 제대로 느끼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환경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할 때 캄보디아의 여러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 상하수도의 분리가 잘 되지 않아 오염된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 쓰레기가 쌓여서 하천을 채운 모습들 등 캄보디아의 상황은 나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캄보디아에 봉사활동 하러 올 때 힘들겠지만 이러한 열악한 상황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많은 것을 느끼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화봉사단의 봉사활동은 주로 깨끗하고 잘 정돈된 장소들에서만 이루어졌고 장소 간의 이동 또한 매우 보호적이고 편안하게 이루어졌으며 음식점들 또한 최고급인 장소들만 골라서 갔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열악한 환경을 직접 느껴보기는 힘들었다. 우리의 봉사활동이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 우리가 교육 봉사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맞추려 보니 그런 것 같지만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직접 방문한 만큼 다른 국내봉사활동과는 다르게 캄보디아 내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함*진 (경제학)

이화봉사단 캄보디아를 알게 된 것은 학교에서 온 문자였다. 그 문자를 보고 이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하나였다. 대학생이라면 한번쯤 해외봉사를 꿈꾸어 보는 것과 같이, 나에게도 해외봉사는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던 이화봉사단은 정말 운이 좋게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이화봉사단과 선생님과 워크샵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워크샵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해야 할 것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들으며 나는 점점 두려워졌다. 내가 생각하던 것 그 이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매우 많았으며, 그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워크샵에서 전 기수 선배님들과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1교시에 모여 회의를 해야만 했고, 기획팀에 속해 있던 나는 교안을 짜야만 했다. 종강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3일씩 함께 모여 준비해야 했다. 학교와 집이 먼 나는 매번 갈 때마다 힘들었지만, 막상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시연하면서 봉사단원들과 정말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준비도 많이 했고, 시연도 수차례 해봤지만 막상 센터에 가는 첫 날은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보조교사였던 나도 그렇게 긴장되고 떨렸는데, 주 교사를 맡았던 단원들은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을 지는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다. 긴장감이 맴도는 버스가 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버스가 도착하자, 미리 센터에 와 있던 많은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수 십 개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던 첫 만남의 순간은 잊을 수 없다. 먼저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는 아이들 덕에, 우리도 마음의 짐을 떨치고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며 조금씩 친해질 수 있었다. 막상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니,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다. 주 교사도, 보조 교사도 정신없이 수업에 임했다. 첫 날 느낀 건, 보조교사의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주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따라 가라,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챙기랴, 나눠준 준비물 가지고 활동하랴 정말 할 게 많았다. 그러나 그만큼 아이들과 친해지기 쉬웠고 보람도 컸다. 비록 아이들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지만, 눈빛과 손, 발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서투르게 하는 크메르어를 매우 좋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들이 아는 짧은 한국어를 해주기도 했다. 우리가 준비해 간 1일차, 2일차 수업으로 센터에서 이들은 매우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주말 문화탐방도 정말 행복한 순간의 연속이었다. 러시안마켓은 캄보디아의 느낌이 담긴 소소한 물건들을 살 수 있어서 좋았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지인들 선물을 사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다. 토요일 오후에 갔던 킬링필드는, 원래 역사를 좋아하는 나에게 더할 나위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더욱 깊게 공감하고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의 역사를 알게 되고, 직접 그 현장에 가보니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더욱 애정이 생기고 친숙해 졌다. 일요일에 갔던 캄보디아 왕궁은 조금 아쉬웠다. 너무 넓었고, 정말 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어떤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오기 전에 미리 조사하고 왔으면 더 많은 것을 보고 얻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부담 없이 즐겁게 주말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니, 내가 주 교사로 수업해야 하는 3일차 수업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특히 3일차는 직접 센터에 와서 공간을 확인하고 1일차, 2일차 수업 하는 걸 지켜보니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했다. 주 교사가 하는 말이 매우 많

고 전달하는 내용이 많은 1교시와 2교시 수업은 주 교사의 대사를 전폭적으로 줄이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수업을 넣었다. 또한, 태권도 수업도 수정을 필요로 했다. 원래 우리가 준비해갔던 태권도 수업은 캄보디아 센터의 제한된 공간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 보였다. 수업 수정과 함께 대사도 수정해야 해서 부담이 컸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밤에 한 방에 모여 수업 수정에 매진했던 3일차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 매우 힘들었을 텐데도 불평, 불만 없이 함께 수정하고 서로 힘을 북돋우며 했기에 가능했다.

하필 내가 수업을 하는 3일차 오전에 2층 방을 못 쓰게 되어, 나는 거의 30명이 훌쩍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나도 처음 주 교사가 되어 수업을 이끄는 거라 정말 많이 떨었고 긴장했다. 더운 날씨 탓도 있었지만, 너무 긴장한 탓에 수업을 하면서도 땀이 줄줄 났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설상가상으로 평소보다 수업을 늦게 시작하게 되어, 간식 시간 전까지 모든 수업 및 활동이 줄줄이 지체됐다.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간신히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함께 수업 피드백을 했다. 수업 시작 시간 꼭 지키고 아이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로 했다. 오전 수업을 해본 경험과 피드백을 통해 오후 수업은 조금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오후에는 아이들이 40명이 훌쩍 넘게 많이 와서, 원래 아래층으로 다 내려와 함께 수업하기로 한 태권도를 같이 못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 태권도 주 교사를 하게 되었다. 위층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 밖에 없어서 통제하기도 힘들었고,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론을 줄이고, 영상 및 아이들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다. 매우 많은 변수가 있었던 3일차 수업이었지만, 3일차 주 교사들, 그리고 봉사 단원들 덕분에 순발력 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뿌듯했다.

센터에서의 모든 수업이 끝난 다음 날은 벽화 봉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해보는 벽화 봉사였는데, 생각보다 힘들었고 생각보다 보람찼다. 난 수연언니, 지영이와 함께 조색을 담당했는데 예쁜 색을 만들었을 때 오는 쾌감은 상당했다. 내가 직접 만든 페인트가 오래오래 남을 센터의 벽에 칠해진다는 게 날 너무 행복하게 했다. 벽화 봉사 끝나기 두 시간 전부터는 지영이와 함께 사용된 붓을 빠는 일을 전담해서 했다. 화장실에 간혀서 붓을 빨면서, 지영이와 함께 여러 노래 부르면서 했는데, 그 모습을 교수님께서 보시고는 washing sisters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다. 장장 두 시간 동안 붓을 빠느라, 우리의 손이 마치 사우나 다녀온 것처럼 오돌토돌 해졌지만, 그것조차 뿌듯했고 보람찼다. 20명 봉사 단원들, 진윤경 선생님, 원영석교수님 다 함께 힘을 합쳐 그린 벽화는 단연코 모든 벽화 중에 제일 예뻐다.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초등학교 수업은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하루에 10반을 돌아다니며 같은 내용의 수업을 하는 건 상당한 체력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6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면, 신기하게도 힘이 나고는 했다. 우리를 마치 연예인 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하이파이브 해 달라고 손 내밀고, 이름을 써달라며 찢어온 종이를 내미는 아이들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고는 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단지 그 순간에 빠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서로를 보고 웃으며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놀라웠다. 우리의 수업을 경청하고, 우리가 알려준 부분에 대해 손을 들어 발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조금은 더 열심히 준비해올 걸'과 같은, 괜한 아쉬움이 들었다.

캄보디아 이화봉사단은 단연코 최고의 버킷리스트였다. 중간고사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지원서를 썼던 내가 괜스레 자랑스럽다. 20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과 화합하고 협동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이들과 나 자신에 집중하

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법을 배웠다. 한창 조금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던 시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나와 함께 거의 세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달려준 19명의 이화봉사단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진윤경선생님께 감사사를 전하고 싶다.